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6월 11일(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 참석

- 한-카자흐스탄 관계 발전이 동포들의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
- 중앙아시아 동포사회와 본국 간 유대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적극 지원 -
-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들의 지지 기대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 시간 6/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

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이래 척박한 땅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계, 재계, 문화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양국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양국 간 교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간 동포들이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고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각지의 동포사회와 본국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단체와 국내 고려인 단체 간의 소통 증진, ▲카자흐스탄 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차세대 고려인 동포 대상 모국 초청 연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관계의 발전이 동포들의 혜택으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동포들도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과 정충환 아스타나 한인회장은 각각 환영사와 건배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내 우리 동포사회 현황을 소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민원 업무 처리도 편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과 정 회장은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카자흐스탄 관계가 더욱 미

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면서, 동포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은 고려인들이 현지 정착 초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는 정치인, 기업인, 전문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신 협회장은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신 안드레이 고려민족중앙회장은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문화 홍보 등 고려인 단체 활동 내역 및 ▲자신이 운영 중인 기업이 국내 기업과 협업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고려인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문화와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면 좋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김 엘레나 고려극장장은 고려극장이 지난 1932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우리말 공연을 지속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전체에 걸쳐 우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 극장장은 고려극장이 최근 우리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음향·조명 장비를 갖추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종수 아스타나 경제인연합회장은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현지 시장 정보와 관련 법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참석자 발언 이후, 1994년 창단해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는 고려인 동포 청소년 무용단 ‘미성’의 부채춤, 태평무, 뱃노래 공연이 이어졌고,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마치며 해외 동포들의 여러 공연을 봤지만 오늘 아스타나에서의 공연을 보면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한국보다 더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절실함을 느꼈고 전통문화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근면·성실하고 정직하며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협동 정신이 있어 강인한 것이라면서, 자녀들에게도 근면, 성실, 정직, 협동 정신을 잘 이어가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에너지, 광물, 인프라, 디지털 문화협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동포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끝>